



정치 > 통일

北, 연평도포격 7주년 행사..."불패 기상 과시한 역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11-24 10:34 송고



북한은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열었다. (노동신문). © News1

북한은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불패의 기상을 과시한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연평도 포사격 전투 승리 7돌 기념 군민 연환모임이 23일 강령군에서 진행됐다"며 "모임에 앞서 연평도 포사격 전투에서 승리를 떨친 군인들에게 근로자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혁혁한 군공을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리성국 육군상장은 이날 연설에서 "연평도 포사격전의 통쾌한 승리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영웅적 조선 인민군의 불패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 조선의 백전백승 역사에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아로새긴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훈련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려 조국 통일을 위한 싸움준비를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갖추며 서남 전선의 모든 초소들을 오늘의 월미도, 불침의 전함으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김봉현 강령군당위원회 위원장도 축하연설에 나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또 다시 우리 영토, 우리 영해에 티끌만 한 불똥이라도 날린다면 군인들과 한전호에서 원수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모임 이후에는 군악단의 연주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북한은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승전을 주장하며 매년 경축행사를 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